

영아보육 및 가족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Infant Day-Care and Family Factors on Maternal Behavior*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박성연
석사과정 고은주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 : Park, Seong Yeon

Graduate Student : Ko, Eun Ju

목 차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Multiple features of infant day-care are explored, including age of entry, quantity, quality and stability of day-care. And relative contribution of day-care and family factors on maternal behaviors are examined. Data were gathered from 299 mothers who have infants aged under 36 months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Results show that more than 40% infants enter day-care before 6 months of their life and about 85% of infants have far more than 30 hours of care a week. Half of the infants experience different day-care arrangements more than once. Compared to the other types of day-care, frequency of day-care arrangement change and quality of care are highest in private child-care centers. A series of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reveal that quality of day care is negatively related to mothers' control behavior whereas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responsive behavior. But in general, family and child characteristics play a greater role i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han infant day-care characteristics.

주제어(Key Words): 영아(Infant), 보육(Day-care),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Seong Yeon, Park,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College of Human Ecology,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3072 Fax: 82-2-3277-2852 E-mail: psy@ewha.ac.kr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41-D00316)

1. 서론

최근에 이르러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원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취업한 기혼여성이 출산 후 직장으로 돌아가는 시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영아보육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책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적 요구와 아동발달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어머니 특히 취업모는 사회적, 가정적 인식의 부족, 핵가족화로 인한 양육지원체계의 상실 및 우수한 보육지원 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보육의 질을 고려할 여지도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육아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 등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박성연, 1995). 더욱이 장시간의 영아탁아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며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시간을 줄여야한다는 Belsky(2001a)의 주장은 취업모들에게 심리적 갈등을 증폭시킴은 물론, 학자들 간에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¹⁾. 국내외적으로 영아탁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취업모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NICHHD, 1997). 또한 양질의 보육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보육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사회적 여건상 취업모가 출산 후 곧 직장으로 돌아가 영아들은 영아기 초기부터 타인양육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생후 1년 이내에 시작한 보육이나 종일제 보육경험은 아동의 불안정 애착이나 불복종 행동 및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Belsky, 1986; Belsky & Rovine, 1988; Vandell & Corasaniti, 1990) 탁아 시작시기나 탁아시간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생후 1년 이내에 시작한 탁아나 장시간 탁아가 아동의 발달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견해(Andersson, 1992; Caughy,

Dipietro, & Strobino, 1994; Field, 1991)도 있으며, 탁아시작시기와 아동의 발달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Scarr, 1998)도 있다. 또한, Howes(1990)는 탁아를 시작한 시기 자체로 인한 영향보다는 보육의 질과의 상호작용을 밝힘으로써 보육의 질이 탁아 시작시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불일치한 견해들은 탁아의 영향이 각 연구들에서 측정된 발달내용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개개 아동이나 가족 변인들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은 탁아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시작시기, 안정성, 양, 질 등 보육관련 요인들로 인해 설명되는 변량보다는 가족변인의 영향력이 더 크며, 탁아의 영향은 가족변인의 질이나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을 시사한다(Belsky, 1999; NICHD, 1997; Lamb, 1999). 이외에도, Belsky, Woodworth와 Cmic(1996)은 부모의 성격이나 영아의 기질,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지, 사회경제적지위, 취업조건 등에서 취약요인(risk factor)이 있는 경우, 영아기 때 주당 20시간 이상의 탁아경험이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부분의 탁아연구에서 보육의 질이나 가정환경적 요인이 통제되지 않아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는 Belsky(2001b)의 비판적 견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탁아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보육의 질, 탁아시간, 탁아안정성 뿐 아니라 아동과 부모를 둘러싼 여러 환경들 간의 관계인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Belsky(1984)나 Menaghan과 Parcel(1991), Abidin(1992)의 모델에서도 제시되었듯이, 탁아로 인한 발달적 영향은 탁아시간의 양이나 탁아경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육의 질이나 양육행동, 또는 기타 가정의 심리적 요인 등 여러 환경 체계들간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 탁아경험의 직접, 간접적인 영향은 양질의 보육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작용하여 양육행동이나 어머니-자녀간 상호작

1) CNN News, 2001. 4. 20; Washington Post, 2001. 4. 20.

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내 10개 지역, 1300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종단연구(NICHHD, 1997; 1999)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영아가 질 좋은 보육을 경험할 경우, 어머니와 유아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어머니의 민감성이 증가되어 어머니의 부모역할 능력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즉, 보육의 질 특히 교사-영아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어머니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한편, 양육행동 모델로서 어머니-자녀간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NICHHD 연구에서는 탁아자체의 영향보다는 보육의 환경적 요인이 가정의 특정한 환경적 요인과 결합되었을 때(즉 dual risk), 영아탁아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단기 종단연구의 일부인 본 연구는 보육관련 변인들은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 한편, 영아탁아로 인한 문제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육프로그램의 기준이나 평가에 관한 연구와 탁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국내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30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질을 평가한 현은강, 이완정(1997)은 성인의 요구와 학습활동 부분에서 국공립시설의 질이 민간시설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정보육 시설만을 대상으로 그 질적 특성을 살펴본 조선영, 이영(1992)은 가정보육시설 중 적절한 수준을 나타낸 시설은 12%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열악한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순형, 이옥경(2000)은 영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국공립 시설의 질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민간 보육시설의 질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가장 질이 낮게 나타났으나, 많은 준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

는 등 결과에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보육경험의 영향에 있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탁아 시작 시기, 주당 탁아 이용시간, 보육시설의 질, 탁아 안정성 등의 보육관련 변인들이 보육시설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설립유형에 따른 보육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설립유형에 따른 보육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국내연구의 또 다른 주류는 보육시설 설립유형이나 또는 타인양육 경험의 질이 아동의 적응이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이 아동의 행동 발달이나 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일치된 결론을 얻고 있다(김숙령, 1997; 박경자, 1992; 양연숙, 조복희, 2001a; 양연숙, 조복희, 2001b; 이숙, 오선영, 1998; 현은강, 태진, 2000). 위 연구들 중 탁아 시작 시기나 시간을 고려한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 김숙령(1997)의 연구는 연구대상 아동이 5~6세 미국아동이라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이지만 장시간 탁아와 보육의 질이 사회적 행동발달에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3~5세 미국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경자(1992)는 탁아시작시기(생후 9개월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주당 20시간 이상의 종일제 영아탁아는 교사가 평가한 3~5세 아동의 공격성, 비동조성 증가와 관련이 있어 탁아시간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에서는 그 기여도가 낮아 교사의 교육내용이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12~18개월 된 우리나라 영아 40명을 대상으로 한 양연숙, 조복희(2001a)는 타인양육 시작시기와 타인양육의 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하여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탁아의 안정성 또는 보육의 질은 양육행동(상호작용)의 질과 상호작용하여 영아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쳤다(양연숙, 조복희, 2001b). 이들의 연구는 특히 타인양육경험과 아동의 행동간의 관계를 단순모델로 보는 대신 아동과 어머니의 특성을 고려하여 타인양

육의 질의 직접적 효과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질의 중재효과를 연구한 점에서 의의가 크나, 표집수가 적어 보다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탁아가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소수로, 양질의 보육은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며(강희경, 조복희, 1999; 김교연, 1994),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하게 한다(박성연, 임미리, 2002).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탁아에 관한 연구들은 보육시설의 평가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나 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소수의 연구들이 보육 시설의 질에 따른 아동의 적응 또는 문제행동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탁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 탁아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생태학적 체계 모델(Bronfenbrenner, 1979; Crouter & McHale, 1993; Menaghan & Parcel, 1991)이나 가족과정 모델(Belsky, 1984)에 근거해 보았을 때, 보육환경의 질적 요인들만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영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의 발달은 보육의 질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부모 및 아동의 특성은 물론,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가정에서의 이루어지는 과정요인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탁아로 인한 영향이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기질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보육의 질이 낮거나 불안정하여 죄책감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어머니는 남편과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장시간의 영아 탁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영아탁아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질적인 보육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영아의 일상적 경험과 관련된 가족과정에도 초점을 맞출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취업모를 주 대상으로 하여 본인양육 어머니와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를 비교함으로써 영아보육의 질이나 양육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설계는 영아

탁아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영아탁아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탁아시작시기, 주당 탁아시간, 보육의 질, 탁아 안정성은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양육스트레스, 부모만족도, 양육행동은 본인양육 어머니와 보육시설이용 어머니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영아의 기질, 보육관련요인, 양육스트레스, 부모만족도가 본인양육 어머니와 보육시설이용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3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어머니 299명으로 영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N=217)와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N=82)로 나누어진다. 보육시설 유형별로 보았을 때, 국공립 보육시설이 135명(62.2%), 민간보육시설 66명(30.4%), 가정보육시설 16명(7.4%)이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머니 본인이 돌보는 경우와 아동을 영아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를 나누어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은 어머니 본인양육의 경우는 여아(57.3%)가,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는 남아(55.8%)가 많았다. 영아의 평균 월령은 어머니 본인이 돌보는 경우 약 19개월,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약 28개월로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약 9개월 정도 많았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각각 31.5세, 33.0세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은 두 집단 모두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한편, 어머니가 직접 돌보는 집단은 대부분(89%)이 주부²⁾였고, 보육시설에 맡기는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99)

변인/구분		빈도(%)		변인/구분		빈도(%)		
		어머니본인(N=82)	보육기관(N=217)			어머니본인(N=82)	보육기관(N=217)	
자녀의 성별	남아	32(42.7)	121(55.8)	아버지의 교육정도	중졸	1(1.2)	2(0.9)	
	여아	47(57.3)	96(44.2)		고졸	17(20.7)	48(22.1)	
아동의 월령	12개월 이하	21(25.6)	5(2.3)	대학원 이상	대학원 이상	45(54.9)	119(54.8)	
	13~24개월	43(52.4)	59(27.2)		무응답	16(19.5)	37(17.1)	
	25~36개월	18(22.0)	131(60.4)			3(3.7)	11(5.1)	
	37개월 이상	0(0)	22(10.1)					
아동의 출생순위	외동이 또는 첫째	52(63.4)	119(54.8)	어머니의 교육정도	중졸	0(0)	1(0.5)	
	둘째	25(30.5)	80(36.9)		고졸	26(31.7)	81(37.3)	
	셋째 이상	5(6.1)	18(8.3)		대학원 이상	49(59.8)	112(51.6)	
아버지의 연령	30세 이하	9(11.0)	15(6.9)	무응답	무응답	1(1.2)	6(2.8)	
	31~35세	43(52.4)	95(43.8)		아버지의 직업	무직·학생	2(2.4)	3(1.4)
	36~40세	16(19.5)	60(27.6)			노동직	3(3.7)	5(2.3)
	41세 이상	4(4.9)	25(11.5)			피고용직	3(3.7)	6(2.8)
무응답	0(0)	22(10.1)	서비스직	7(8.5)		11(5.1)		
어머니의 연령	30세 이하	32(39.0)	54(24.9)	자영업	자영업	11(13.4)	32(14.7)	
	31~35세	35(42.8)	106(48.8)		회사원·교사	40(48.8)	111(51.2)	
	36~40세	6(7.2)	31(14.6)		전문직	12(14.6)	19(8.8)	
	41세 이상	1(1.2)	8(3.7)		고위관리직	1(1.2)	11(5.1)	
월평균 총 수입	200만원 미만	25(31.3)	46(21.3)	기타	기타	3(3.7)	9(4.1)	
	200만원~300만원미만	30(36.6)	60(27.7)		무응답	0(0)	10(4.6)	
	300만원~400만원미만	19(23.2)	56(25.8)		어머니의 직업	무직·주부·학생	73(89.0)	56(25.8)
	400만원 이상	6(7.3)	49(22.6)			노동직	0(0)	1(0.5)
무응답	2(2.4)	6(2.8)	피고용직	0(0)		4(1.8)		
			서비스직	3(3.7)		15(6.9)		
			자영업	1(1.2)	13(6.0)			
			회사원·교사	2(2.4)	93(42.9)			
			전문직	1(1.2)	14(6.5)			
			고위관리직	0(0)	2(0.9)			
			기타	2(2.4)	12(5.5)			
			무응답	0(0)	7(3.2)			

집단의 경우도 주부가 약 26%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회사원 및 교사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의 월 평균수입은 두 집단 모두 대부분이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중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³⁾. 연구변인 외에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 수입수준에 대한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영아의 성

및 월령에서는 어머니 양육집단과 영아보육시설 이용집단 간에 차이를 보여(각각 $\chi^2=4.08$ $df=1$ $p<.05$; $\chi^2=74.23$ $df=3$ $p<.001$), 연구문제 분석에서는 두 변인을 통제한 후 분석하였다.

- 2) 어머니 본인 양육의 경우 11%의 어머니는 시간제 취업이었다. 그러나 시간제 취업모와 전업주부 어머니간에는 모든 연구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 통계청(2001)에서 제시한 도시가계의 월 평균소득(2,355,100원)에 근거함.

2. 측정 도구

1) 보육관련 변인

보육관련 변인은 전반적인 보육시설이용 실태에 관한 문항, 보육의 질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보육시설 이용실태

보육시설이용 실태에 관한 문항에는 현재 자녀를 위탁한 기관을 이용한 시작시기, 주당 이용시간, 보육시설 변경시기와 내용, 지속기간, 보육자의 교체횟수와 시기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2) 보육시설의 질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Miller(1990)의 척도에 기초한 박성연, 임미리(2002)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물리적 환경, 건강과 안전,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및 아동과의 관계, 부모와의 협력관계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 28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시설의 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8문항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4문항들을 제외시키고 24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척도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9~.90 범위였다.

2) 어머니 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어머니관련 변인에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부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포함된다.

(1)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 타인양육으로 인한 죄책감, 양육부담감, 타인양육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일상적 양육스트레스'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두 하위 요인 19개 문항 중 18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양육부담감'에 관한 문항은 Hagekull, Bohlin과 Hammarberg(2001)가 개발한 Locus of Control Scales 중 Parental Control of Child's Behavior척도 10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타인 양육에 대한 거부

감'에 대한 문항으로는 Greenberger와 Goldberg(1989)의 연구를 참고로 10문항을 구성하였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상생활 장면에서 직면케 되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으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든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등의 내용이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으며,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기저귀가 젖은 채로 있어서 화가 난 적이 있다', '아이가 아픈 것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등이다. '양육 부담감'은 아이를 다루는데 있어 그 통제소재가 부모 혹은 아동에게 있느냐에 따른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는 내 아이의 행동을 다루기가 어렵다', '나는 원치 않지만 아이가 고집을 피워 할 수 없이 행동할 때가 있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타인 양육에 대한 거부감'은 어머니가 아동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얼마나 반대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이다.

양육스트레스 관련 모든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죄책감이 크며, 양육부담감이 크고 영아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5\sim.86$ 범위로 나타났다.

(2) 부부 만족도

부부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현숙(2001)이 개발한 '한국형 결혼 만족도 척도' 중 '부모역할'과 '가사역할' 두 하위영역 척도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역할(남편의 양육도움)'에 해당하는 문항은 '우리 부부는 부모역할을 하도록 서로 도와준다', '우리는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알고 서로 도와준다' 등의 내용이며, '가사역할(남편의 가사도움)'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남편은 가사를 잘 도와준다', '나는 가사 부담과 관련된 갈등을 남편과 대화로 해결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응답방식은 원래 0~4점의 5점 Likert식 척도이나, 본 연구에

서는 1~5점의 Likert식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항상 그렇다'에는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두 하위영역 각각 $\alpha = .88$ 이었다.

(3)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영아를 둔 어머니들에게 중요시된다고 판단되어지는 4가지 범주의 양육행동(거부, 통제, 과보호, 반응성)을 선정하고 Park, Belsky, Cmic와 Putnam(1997)과 이미정(1998)의 연구를 참고로 29문항을 작성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척도로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항상 그렇다)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범주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뜻한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29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치 1이상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문항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5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총 24문항이 결과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양육행동 척도중 요인 1은 '거부'로서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불만이나 비난을 표시하며 귀찮아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 범주의 문항들로는 '나는 아이가 말을 붙이면 귀찮다', '아이의 질문이나 요청을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요인 2는 '통제'로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제한하고 간섭하며 지시하는 태도이다. 예로는 '나는 아이가 하는 일을 잠자코 보지 못하고 간섭을 하는 편이다', '나는 아이의 행동을 고치려고 잔소리를 하는 편이다'를 들 수 있다. 요인 3은 '과보호'로서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되도록 막고 의존성을 조장하는 행동으로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에 포함된 문항들로는 '나는 아이가 놀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되도록 집안에서 하도록 하는 편이다', '아이가 늘 어린 아기처럼 생각된다' 등이다. 한편, 요인 4는 '반응성'으로서 자녀가 나타내는 모든 형태의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의 신호에 적절하고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반응한다', '아이의 기분이나 변화를 잘 알아챈다'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3 \sim .81$ 범위였다.

3) 아동관련변인: 영아의 기질

기질 측정을 위해서는 Goldsmith(1992)가 개발한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표 2> 척도의 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척도	문항수	α	척도	문항수	α
보육관련 변인			어머니 관련변인		
보육시설의 질			양육스트레스		
물리적 환경	5	.87	일상적 스트레스	10	.86
건강와 안전	5	.79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	.85
교육과정	5	.85	양육부담감	10	.75
부모와의 협력과정	5	.81	타인양육에 대한 거부감	10	.78
교사의 자질 및	4	.90	부부 만족도		
아동과의 관계			남편의 양육도움	4	.88
			남편의 가사도움	4	.88
아동관련 변인			양육행동		
영아의 기질			거부	6	.76
정서성	5	.77	통제	6	.81
활동성	4	.70	과보호	6	.79
사회성	4	.70	반응성	6	.73

(TBAQ)'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개 차원 13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성' 차원은 긍정적 정서정도를 측정하며 '활동성'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활동수준을 의미한다. '사회성'은 아동이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에게 쉽게 접근하거나 친숙해지는 성향과 관련된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항상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에 해당하는 기질 특성이 강한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질 문항의 신뢰도는 $\alpha=.70\sim.77$ 범위였다. 위의 모든 척도의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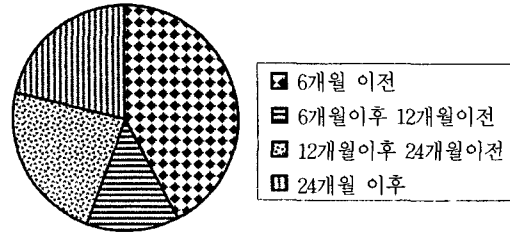
3. 자료수집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본조사는 2002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서울을 비롯한 18개 영유아 어린이집의 교사를 통하여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거나, snow-ball 표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거된 질문지 중 일부 자료가 미비하거나 연구목적에 적합되지 않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9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기술 통계치인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t검증, 일원 변량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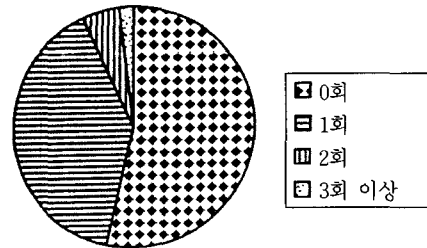
III. 연구 결과

1. 기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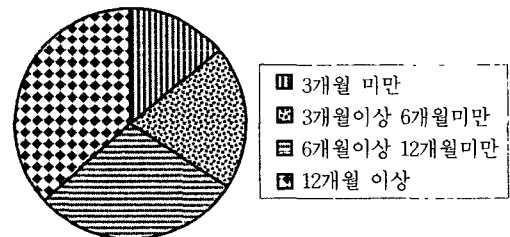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연구대상 전체영아(N=299)중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영아(N=217)의 시설이용에 대한 기초분석을 하였다. 우선 탁아를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면, 출생 후 6개월 이전에 탁아를 시작한 경우가 79명(36.4%), 6개월 이상~12개



<그림 1> 탁아시작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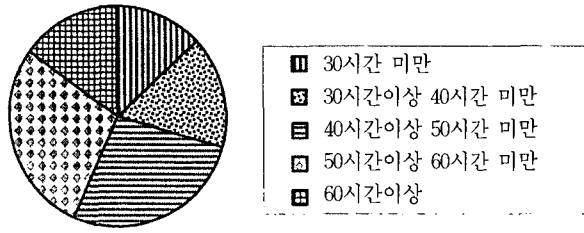
<그림 2> 보육시설 변경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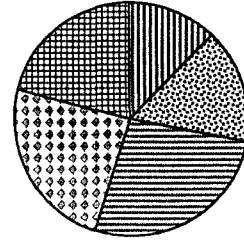
<그림 3> 보육시설당 평균이용기간

월 미만이 31명(14.3%),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56명(25.8%)이었으며, 24개월 이후에 탁아를 시작한 아동은 51명(23.5%)으로 나타나 6개월 이전에 탁아를 시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그림 1 참조>).

탁아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시설 변경 정도와 보육시설이용 평균기간을 살펴본 결과, 한번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가 116명(53.5%), 1번 변경한 경우는 86명(39.6%), 2번 변경한 경우는 11명(5.1%)이었으며, 3번 이상 시설유형을 변경한 경우는 4명(1.9%)으로 대상영아의 절반 가까운 약 46%가 보



〈그림 4〉 현재 주당 보육시설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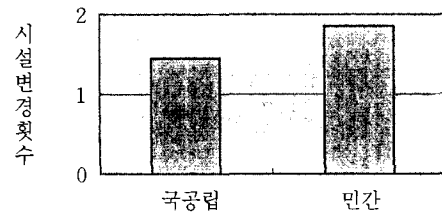
〈그림 5〉 전기기간동안 주당 보육시설 이용시간

육시설을 1번 이상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또한 보육시설 당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이 33명(15.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43명(19.8%),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이 63명(29.0%), 12개월 이상이 78명(35.9%)으로 대부분의 보육시설을 6개월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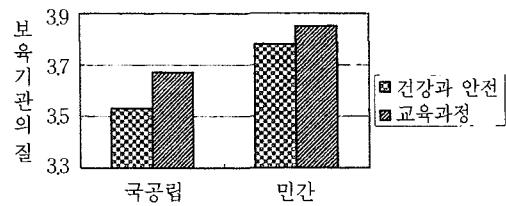
한편,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의 주당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30시간 미만이 20명(9.2%),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이 34명(15.7%),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이 58명(26.7%), 50시간 이상~60시간 미만이 56명(25.8%), 60시간 이상이 26명(12.0%)으로 90%이상의 영아가 주당 30시간 이상 보육시설에 맡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이외에도 영아가 보육시설에 맡겨지기 시작한 월령부터 현재까지의 전 기간 동안 이용시간을 평균으로 산출한 주당 탁아시간 평균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 30시간 미만이 약 9%,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이 16%,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이 27%, 50시간 이상~60시간 미만이 22%, 60시간 이상이 19%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2.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탁아 시작시기, 주당 탁아시간, 탁아안정성 및 보육의 질

영아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탁아시작시기, 주당 탁아시간, 탁아의 안정성 및 보육의 질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설유형을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로 구분하여 각 변인에 대한 t 검증을



〈그림 6〉 탁아안정성



〈그림 7〉 보육기관의 질

실시하였다⁴⁾. 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영아들은 평균 생후 13개월경부터 국공립이나 민간 보육시설에 맡겨지기 시작했으며, 주당 탁아시간은 민간이나 국공립의 경우 모두 주당 45시간 전후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시설유형에 따른 '탁아 시작시기'나 '주당 탁아시간'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시설변경 횟수'는 보육시설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민간 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경우 변경회수가 더 잦았다

4) 가정보육시설은 표집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3〉 보육시설유형에 따른 보육관련변인들의 차이

	국공립보육시설(N=135)		민간보육시설(N=66)		t	p	
	Mean	(SD)	Mean	(SD)			
탁아 시작 시기	13.60	(10.56)	13.44	(11.09)	0.10	0.921	
주당 탁아시간	44.86	(13.46)	46.70	(14.74)	-0.83	0.406	
탁아안정성	시설변경횟수	1.45	(0.56)	1.85	(1.00)	-3.62	0.000
	평균이용 개월수	9.16	(6.18)	9.35	(6.45)	-0.20	0.844
보육시설의 질	3.63	(0.45)	3.77	(0.60)	-1.89	0.061	
	물리적 환경	3.53	(0.63)	3.66	(0.80)	-1.28	0.203
	건강과 안전	3.53	(0.57)	3.78	(0.74)	-2.65	0.009
	교육과정	3.67	(0.55)	3.85	(0.64)	-2.03	0.044
	교사자질	4.12	(0.57)	4.17	(0.62)	-0.50	0.619
	부모와의 협력관계	3.29	(0.70)	3.40	(0.84)	-1.00	0.318

($p<.001$)〈그림 6 참조〉. 또한 보육시설 당 평균 이용 기간은 국공립이나 민간 시설 모두 평균 9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의 질'은 특히 '건강과 안전' ($p<.01$) 및 '교육과정'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민간 시설이 국공립시설보다 우수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림 7 참조〉.

3. 주 양육자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부모만족도

연구문제 2과 관련하여 본인양육의 경우와 보육 시설 이용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 만족도, 양

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본인이 돌볼 경우 스트레스수준이 다소 높았으나($p<.10$) '양육 부담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타인 양육에 대한 거부감'에서는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나 어머니가 영아를 직접 돌볼 경우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를 비교적 많이 느끼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만족도 중 '남편의 양육도움' ($p<.10$)에서는 어느 정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어머니가 직접 돌보는 경우, 남편이 영아를 돌보는 것에 다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표 4〉 주 양육자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부모만족도, 어머니 양육행동의 차이

(N=299)

	어머니본인(N=82)		보육시설(N=217)		t	p	
	Mean	(SD)	Mean	(SD)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3.12	(0.62)	2.97	(0.64)	1.90	0.058
	양육부담감	2.47	(0.51)	2.46	(0.46)	0.08	0.937
	타인양육 거부감	3.68	(0.53)	3.22	(0.49)	6.98	0.000
부모 만족도	남편의 양육도움	3.64	(0.80)	3.45	(0.81)	1.77	0.078
	남편의 가사도움	3.22	(0.95)	3.14	(0.97)	0.69	0.491
어머니의 양육행동	거부	2.29	(0.57)	2.34	(0.56)	-0.71	0.482
	통제	2.92	(0.63)	2.85	(0.59)	0.94	0.349
	과보호	3.43	(0.65)	2.98	(0.73)	4.80	0.000
	반응성	3.76	(0.51)	3.69	(0.51)	1.15	0.251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과보호적 양육행동' ($p<.001$)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직접 돌보는 어머니일수록 영아에게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영아의 기질, 보육관련요인, 양육스트레스, 부부만족도가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본인양육 집단과 보육시설이용 집단의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이 어머니를 둘러싼 여러 환경적 요인 중 서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두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각 집단을 대상으로 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부부만족도에서 가사도움과 양육도움에서 높은 상관관계($r=.70$ 과 $.91$)를 보여, 회귀분석에서는 양육도움만을 선택하여

회귀모델에 투입하였다. 우선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아의 성 및 연령을 통제된 상태에서 영아의 기질, 양육스트레스, 부부만족도 변인을 투입하여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양육부담감($\beta=.39$)과 양육도움 만족도($\beta=-.30$) 변인인 한편,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47%였고 이중 양육 스트레스관련 변인들이 전체변량의 25%를 설명하였다. 또한 '통제적' 양육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양육도움 만족도($\beta=-.33$) 이었고, '과보호'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인양육 거부감($\beta=.34$) 변인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한편, 영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경우, 양육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아의 성과 연령을 통제된 상태에서 영아의 기질, 보육관

5) 지면관계상 표에서 베타 값은 모든 변인이 투입된 최종 모델 수치만을 표기함

<표 5> 어머니 본인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기질, 양육 스트레스, 부부만족도의 위계적 회귀분석⁵⁾

	거부			통제			과보호			반응성		
	β	ΔR^2	F ΔR^2	β	ΔR^2	F ΔR^2	β	ΔR^2	F ΔR^2	β	ΔR^2	F ΔR^2
성 연령	-10 -.00	.08	3.46*	.17 .28*	.16	7.27**	.17 .21	.03	1.32	-.05 .19	.01	.40
아동의 기질												
정서성	-12			.01			.26*			.18		
활동성	-.03	.06	1.71	.07	.02	.064	-.15	.09	2.39†	-.07	.07	1.83
사회성	.15			-.15			.09			-.02		
양육스트레스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13			.22*			.17			-.14		
양육부담감	.39***	.25	9.87***	-.06	.07	2.14	-.11	.11	3.47*	-.19	.17	5.45**
타인양육의 거부감	-.09			-.03			.34**			.25*		
남편의 양육도움	-.30**	.07	9.72**	-.33**	.09	9.20**	-.08	.01	.52	.23*	.04	4.17*
R ²		.47			.34			.24			.29	
F		6.85			3.93			2.42			3.23	
p		0.000			0.000			0.019			0.002	

† p <.10, * p<.05, ** p<.01, *** p<.001

〈표 6〉 이동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기질, 보육관련요인, 양육스트레스, 부모만족도의 위계적 회귀분석⁶⁾

	거부			통제			과보호			반응성		
	β	ΔR^2	F ΔR^2	β	ΔR^2	F ΔR^2	β	ΔR^2	F ΔR^2	β	ΔR^2	F ΔR^2
성 연령	-.03 .04	.01	1.00	.00	.07		.04 -.21*	.03	2.58 †	.08 .00	.01	.51
아동의 기질												
정서성	-.11			-.04			-.09			.14 †		
활동성	-.08	.08	5.02**	-.02	.03	1.78	.08	.02	1.55	.15*	.19	14.12***
사회성	.01			.01			.01			.18*		
보육관련요인												
시작시기	.10 †			.10			.24*			.09		
이용시간	-.00			-.02	.05	2.54*	.12			.06		
보육의 질	-.08	.02	.81	-.17*			-.11	.06	3.21*	.16*	.03	1.69
안정성	.04			-.03			.11			.08		
양육스트레스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16*			.17*			.06			.04		
타인양육의 죄책감	.10			.10	.08	4.07**	.08	.03	1.49	.04	.06	3.72**
양육부담감	.35***	.25	16.90***	.09			.01			-.24**		
타인양육의 거부감	-.15*			-.11			.15*			.06		
남편의 양육도움	-.09	.01	1.96	-.10	.01	2.00	-.03	.00	.16	.09	.01	1.82
R ²		.36			.17			.15			.29	
F		6.98			2.51			2.10			5.09	
p		0.000			0.003			0.014			0.00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련변인, 양육스트레스, 양육도움 만족도 변인을 투입하여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표 6 참조). 그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 중 '양육부담감' ($\beta=.35$),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beta=.16$), '타인양육의 거부감' ($\beta=-.15$)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총 변량의 3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양육 집단과는 달리 양육도움 만족도는 어머니의 거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보육시설이용 어머니들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가장 예측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beta=.17$)와 '보육의 질' ($\beta=-.17$)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17%

였다. 결국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보육의 질이 좋지 않을수록,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타아 시작시기' ($\beta=.24$), '타인양육의 거부감' ($\beta=.15$)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전체변인들의 설명력은 15%였다. 즉, 타아를 늦게 시작하고, 영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은 '양육부담감' ($\beta=-.24$), 영아의 '사회성' ($\beta=.18$), '보육의 질' ($\beta=.16$), '활동성' ($\beta=.15$)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

6) 지면관계상 표에서 베타 값은 모든 변인이 투입된 최종 모델 수치만을 표기함

며 전체 설명력은 29%였다. 즉, 어머니가 아기를 다루는데 있어 어려움을 덜 느낄수록, 아기의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육의 질이 좋을수록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보육시설의 요구도가 높음에 반해 영아탁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보육관련 변인 및 영아의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요인 등 가족변인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아를 둔 어머니 299명으로부터 질문지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보육시설 이용실태를 보면, 아기 출생 후 6개월 이전에 탁아를 시작하는 비율이 약 41%로 가장 높았으며, 85% 이상의 영아가 시작시기부터 평균 주당 30시간 이상 탁아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탁아 시작시기나 주당 탁아시간은 생후 3개월에 연구대상 영아의 약 40%, 그리고 생후 6개월에는 약 50%가 30시간 이상 타인양육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미국의 NICHD 대규모 연구(Belsky, 1997)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주당 평균 탁아시간의 양에서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높아, 30시간 이상의 탁아나 6개월 이전에 시작한 탁아는 아동발달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Belsky, 2001a)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아동발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육시설 변경횟수에서는 연구대상 영아의 약 54%가 한번도 변경하지 않고 한 시설에서 보육되고 있으며, 약 절반에 가까운 영아가 1번 이상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36%의 영아가 한 보육시설 당 평균 이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반면, 34% 정도의 영아만 12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탁아안정성이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변경횟수로 측정되는 탁아안정성이 양육행동의 질과 상호작용하여 안정에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양연숙, 조복희, 2001a, NICHD, 1997)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영아탁아 현실이 영아발달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영아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관련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국공립이나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은 생후 13개월부터 탁아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변경횟수는 민간 보육시설일 경우 국공립보다 높아 비교적 불안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12개월 이전의 어린 영아를 맡아주는 국공립이나 민간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보건복지부, 2003)을 간접적으로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육의 질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민간 보육시설이 국공립 시설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건강과 안전 및 교육과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민간 보육시설의 질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질이 기타 보육시설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결과(현은강, 이완정, 1997) 및 국공립과 민간시설 간에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이순형, 이옥경, 2000)와 다소 다르다. 이러한 연구들간의 비일관된 결과는 표집시기나 표집지역, 또는 평가내용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결국 보육시설의 질은 다요인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Pierrehumbert, Ramstein, Karmaniola, Milkovitch & Halfon, 2002),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질적 차이가 일관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와 부부만족도 및 양육행동에서 본인양육 어머니와 보육시설이용 어머니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이용 어머니 집단보다 어머니 자신이 양육할 경우 타인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높으며, 과보호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할 수 있는데, 우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75% 이상이 취업모라는 점에서 볼 때, 어머니 자신의 여건상 부득이 타인양육 거부감이 비교적 낮으며, 과보호 성향

도 낮을 수 있다. 이외에도 어머니 본인이 양육하는 집단의 경우 타인양육거부감이 높고 과보호 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시설이용 집단의 경우보다 아기의 평균연령이 낮는데 기인할 수 있어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본인양육 어머니 집단과 보육시설이용 어머니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 자신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거부적, 통제적, 양육행동 및 반응적인 양육행동 등 대부분의 양육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은 남편의 양육도움이었다. 이외에도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아이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 갖게 되는 양육부담감이 중요한 예측변인인 한편, 어머니의 과보호 행동은 타인 양육거부감이 높을 때 나타났다. 결국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났듯이 어머니 본인이 영아를 양육할 경우, 남편의 양육도움 또는 부부만족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지지요인임이 확인되었다 (Abidin, 1992; Belsky et al., 1996).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양육도움은 모든 양육행동에서 그 상대적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 본인양육 어머니의 행동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질은 반응적인 행동이나 통제적이지 않은 행동 등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보육시설 이용 집단의 경우는 부부만족도보다 보육의 질이 더 중요한 변수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보육시설의 질의 주 효과는 기대보다 적었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하여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은 NICHD연구(1997; 1999)를 지지한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높은 질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행동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Belsky, 1997; 1999)에 근거해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이들의 경로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자신감이 없어 양육부담감을 갖는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거부적이며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을 이용하

는 어머니에게도 양육부담감은 여전히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탁아시간의 양은 양육행동을 예측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후 일년 동안 영아가 경험하는 주당 탁아시간이 많을수록 15개월에 측정된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행동이나 영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한편,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하였다는 NICHD(Belsky, 1997) 결과와는 다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탁아의 여러 위험요인 각각을 합산한 누적효과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우리나라 영아들은 상당수가 12개월 이전의 어린 시기부터 장시간 탁아를 경험하고 있으며, 탁아 안정성도 낮아 발달적 측면에서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또한 본인양육 어머니의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은 양육부담감이나 남편의 양육도움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편,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양육부담감이나 보육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사실상 영아탁아가 현실적으로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영아보육의 질은 아동발달에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난 양육부담감의 중요성은 영아를 가진 어머니는 물론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장들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영아나 아동의 발달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부모로서의 자신감 부족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영아, 특히 어려운 기질의 아기를 가진 어머니를 위해서는 양육부담감을 줄여주는 한편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영아보육시설과 취업모를 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대표성이 낮고 보육시설 유형별로 연구대상자 수가 다르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또한 상관연구 설계이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아탁아에 관한 국내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보육환경변인 및 가족변인 등 생태학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영아탁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희경, 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역할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6.
- 김교연(1994). 탁아서비스의 질이 취업모의 역할 긴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숙령(1997). 영유아의 탁아 경험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2), 5-18.
- 박성연(1995). 가정학의 사회적 기여: 부모의 역할과 영유아를 위한 질적탁아. *인간 생활환경연구* 89-102.
- 박성연, 임미리(2002).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57-68.
- 박경자(1992). 영·유아기 타인양육이 학령전 어린이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3(2), 217-228.
- 보건복지부(2003).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
- 양연숙, 조복희(2001a).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격리 및 타인양육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의 특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67-81.
- 양연숙, 조복희(2001b).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동학회지*, 22(1), 51-66.
- 이미정(1998). 3세 여아의 행동억제와 그 관련변인 - 영아기 정서성, 부모의 내향성,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 오선영(1998). 보육시설의 질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189-198.
- 이순형, 이옥경(2000). 한국보육시설의 영아기 프로그램 운영평가. *아동학회지*, 21(1), 121-140.
- 정현숙(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 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4.
- 조선영, 이영(1992). 가정 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2), 129-144.
- 현온강, 이완정(1997).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 타당화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5(6), 235-348.
- 현온강, 태진(2000).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적응 - 인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8(3), 25-42.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ndersson, B. (1992). Effects of day-care on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of thirteen-year-old Swedish school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20-36.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1986).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 Belsky, J., Woodworth, S. & Crnic, K. (1996). Trouble in the second year: Three questions about family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7, 556-578.
- Belsky, J. (1997). The effects of nonmaternal care on child development. 1997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초록.
- Belsky, J. (1999). Quantity of nonmaternal care and boy's problem behavior/adjustment at age 3 and 5: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Psychiatry*, 62, 1-20.
- Belsky, J. (2001a). Early Childcare and Children's Development Prior to School Entry. *SRCD symposium*, Minneapolis, April.
- Belsky, J. (2001b). Developmental risks associated

- with early child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 845-860.
- Belsky, J., & Rovine, M.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67.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ughy, M., Dipietro, J. & Strobino, D. (1994). Day care participation as a protective factor in cognitive development of low-income children. *Children Development*, 65, 457-471.
- Crouter, A. & McHale, S. (1993). The Long arm of the job; Influences of parental work on childrearing. In T. Luster, & B.O.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179-202.
- Field, T. (1991). Quality infant day care and grade school behavior and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2, 863-870.
- Goldsmith, H. (1992).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Oregon, Eugene, OR.
- Greenberger, E. & Goldberg, W. (1989). Work, Parenting, and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25(1), 22-35.
- Hagekull, B., Bohlin, G. & Hammarberg, A. (2001). The role of parental perceived control in child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5), 429-437.
- Howes, C. (1990). Can the age of entry and the quality of infant child care predict adjustment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92-303.
- Lamb, M. (1999). Nonparental child care. In M.E. Lamb (ED.),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nontraditional' families*(pp.39-55).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Menaghan, E. & Parcel, T. (1991). Transitions in work and family arrangement. In K. Pollner & K. McCartney(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Miller, A. (1990). *The day care dilemma: critical concerns for American families*. NY: Pleum Press.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879.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9). Child Care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the First 3 Year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5(6), 1399-1413.
- Park, S. Y., Belsky, J., Crnic, K. & Putnam, S.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lawful discontinu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18-227.
- Pierrehumbert, B., Ramstein, T., Karmaniola, A., Miljkovitch, R. & Halfon, O. (2002). Quality of child care in the preschool years: A comparison of the influence of home care and day care characteristics on child outcom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 5, 385-396.
- Scarr, S. (1998). American child care today. *American psychologist*, 53, 95-108.
- Vandell, D. & Corasaniti, M. (1990). Child care and the family; Complex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49, 23-38.

(2003년 3월 20일 접수, 2003년 6월 12일 채택)